

# 특량강진만권協, 이순신 테마용역 등 7개사업 확정

## 고흥·보성·장흥·강진군 협력 신규사업·예산안 승인 의결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구성한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회장 공영민 고흥군수)가 이순신 장군 테마 사업 연구용역 등 새해 신규 사업을 확정했다.

27일 고흥군에 따르면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는 지난 26일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제8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의 의장을 비롯해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4개 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2024년 신규사업과 예산안 승인 등 협의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이순신 장군 테마 사업 추

진 연구용역 △특량만강진만권 군민 관광문화시설 감면 지원 △4개군 공직자 축구대회 개최 △4개군 공직자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추진 △4개군 합동 대도시 직거대상터 운영 △특량만강진만권 수산 종자 방류 공동 추진 등 7건을 2024년 신규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추진 및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교류와 화합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4개군 공직자 축구대회 개최 및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10월 처음 개최해 호응을 받았던 4개군 군민화합 합창 페스티벌은 2024년 4월 고흥군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제2회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2024년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4개 군 교류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가 지난 26일 고흥 선밸리리조트에서 제8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공동협력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고흥군 제공

다. 한편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는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등 4개 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특량만과 강진만의 연안 보존개발과 지역 동반성장을 위해 2018년 창립했다. 양기람 기자

## 선별진료소 이달 말 운영 종료 순천시, 고위험군 검사비 지원

순천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31일을 끝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은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441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확진자 증가추세 전환 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을 고려해 위기 단계는 '경계'로 유지하되, 최근 PCR 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것.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면 보건소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고,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외 일반병동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는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본격 설치 광양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광양시는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27일 밝혔다.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등을 심의했다.

시는 입지후보지 조사 결과 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차(茶)산업 발전 학술대회 성황 보성군, 가루녹차 수출 모색 등

보성군은 27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학계, 차(茶) 관련 단체, 차문화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2023년 보성 차산업 발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3년 보성 차산업 발전 학술대회'는 보성차문화연구회(회장 조기정)가 주관하고 보성군, 전남도차산업연구소, 목포대학교, 보성차생산자조합, 보성차문화회가 후원했다.

행사는 보성차 생산의 현재와 미래 연구 및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보성산 가루녹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 전략(경상국립대 이주현 교수) △기후변화에 따른 차나무 재배 및 차광재배 방안(하동농업연구소 심두보 박사) △중국 신식 차음료 현황 및 전남 차산업 발전 방향(전남도 차산업연구소 김은혜 박사) △차산업 고도화프로젝트 등 보성차산업 역점 추진 방향(보성군 손연지 차산업팀장) 주제로 이뤄졌다.

보성 차산업과 문화도 청룡처럼 비상하자는 의미로 마련된 '아름다운 찾자리 콘테스트'에서는 금상에 손명자 씨가 수상했으며, 은상에는 양충남, 박연희 씨, 동상은 이은자, 김인숙, 이종남 씨가 선정됐다. 양기람 기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장관상 고흥군 사회복지협의회

고흥군이 '2023년 취약노인 보호사업 공모전'에서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진행된 프로그램 중 제도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고 효과성이 우수했던 프로그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은 프로그램 부문에 전국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65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는 프로그램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통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자조 모임을 통해 사회관계 회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양기람 기자



취약노인 보호사업 공모전에서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 제공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 당부 광양시 지정의료기관 무료 접종

광양시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아직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 대응행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했고,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전면 완화에 따른 대면활동의 증가,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동절기(12월~2월)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고위험군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은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이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먼 보건지소(읍 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제외)에서도 접종 가능하며, 보건지소별 접종 일자가 다르므로 반드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 보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3억원 돌파

### 이색 답례품 이벤트 등 성과

보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부액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로 3억 1126만원 중 7500만원이 모금됐다. 이는 21일 기준 전체 기부액 대비 24%에 달한다.

전체 기부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24명, 기부한도액인 500만원 기부자는 9명이다.

연령별로는 20~30대 기부자가 기부액의 27%, 40~50대 기부자는 기부액의 56%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 기부자는 기부액의 16%를 담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133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이 872명, 경상도가 333명, 충청도가 130명, 기타 강원도 및 제주도 등이 84명으로 집계됐다.

인기 답례품으로는 녹동이 436건 주문으로 1위이며 쌀, 보성사랑상품권, 키위, 배즙, 녹차 등이 뒤를 이었다.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91개로 '보성물'에 입점된 70개 업체의 상품과 보성사랑상품권, 보성물 모바일 쿠폰, 별초 대행 서비스, 제암산자연휴양림 숙박, 울포해수욕장센터 이용, 대원사 템플스테이 등 보성만의 특색이 반영된 답례품이 준비돼 있다.

보성군은 인구소멸대응 및 고향사랑기

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인구조정책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보성군청 직원, 농협 보성지점 직원들은 자매결연 단체인 광주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등과 교차 기부를 지원해 5600만 원의 기부 실적을 냈다.

보성군은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감사장을 제작해 답례품 발송 시 함께 보냈다.

보성군은 연말 정산을 앞둔 12월 한 달간 1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물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기람 기자

## 고흥군, 소록도 앞바다에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고흥군 소록도 앞바다에 참문어 서식장이 조성된다.

고흥군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공모사업인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해서 국비 25억 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공모 선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일대

186ha에 인공구조물로 제작한 '문어단지' 설치와 종묘 방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지를 공모하고 학계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흥군이 선정된 위치가 수온과 수심, 지질 등 모든 환경이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에 최적지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조성 사업 해

역을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 관리 공동체(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규제 관리와 불법 어업, 외지 선박 차단 등 자체 감시 활동도 벌인다.

고흥군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029년부터 2033년까지 5년에 걸쳐 산란 서식장의 자율적인 관리 이용 등을 추진한다. 양기람 기자